

‘화두정신’ 상실 간화선 위기 불러

박성배 교수 “화두를 방법으로 보지 말라” 보조사상연구 국제세미나… 해외 간화선도 점검

최근 ‘간화선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위빠사나를 필두로 다양한 수행법이 확산되면서 대표 수행법으로서의 간화선 위상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조계종이 <조계종 수행의 길-간화선>이라는 간화선 지침서를 펴내고, ‘간화선 기본 수행프로그램’을 내놓은 것도 그런 위기의식의 발로인 셈이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 대해 박성배 교수(미국 뉴욕주립대)가 간화선 수행 풍토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박 교수는 11월 26일 서울 법륜사에서 ‘간화선 수행전통과 현대사회’를 주제로 열린 보조사상연구(원장 법산) 국제학술회에서 “간화선 위기는 다양한 수행법의 성행이 아닌, 화두정신이 실종된 장사속 발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오늘의 수행풍토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기초강연에 이어서 라이용하이 교수(중국 난징대), 니시무라 에신 교수(일본 하나조노대), 중호 스님(중국 교수), 서명원 교수(서강대)가 해외의 간화선 위상과 발전가능성을 점검했다.

만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 박 교수의 문제의식이다.

이 같은 병폐의 원인으로 박 교수는 화두를 하나의 ‘방법’으로 간주하는 풍조를 들었다. 3자 입장에서 말하면 화두가 방법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말길이 끊어지고 뜻 길이 끊어지고 마음 길이 끊어진 경지에 들어갔다던 화두를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있다면 그게 조계종이고 간화선이라는 정신혁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병현 서울대 교수도 총평에서 “간화선의 역사는 도그마를 깨는 과정이었음”을 상기시키며, 도그마에 갇혀버린 간화선의 현실을 비판했다. 최 교수는 “당송대나 고려대의 간화선이 아닌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해당하는 간화선이 절실하다”며 “화두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구에서의 전망 어둡지만은 않아
이처럼 국내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간화선은 해외에서도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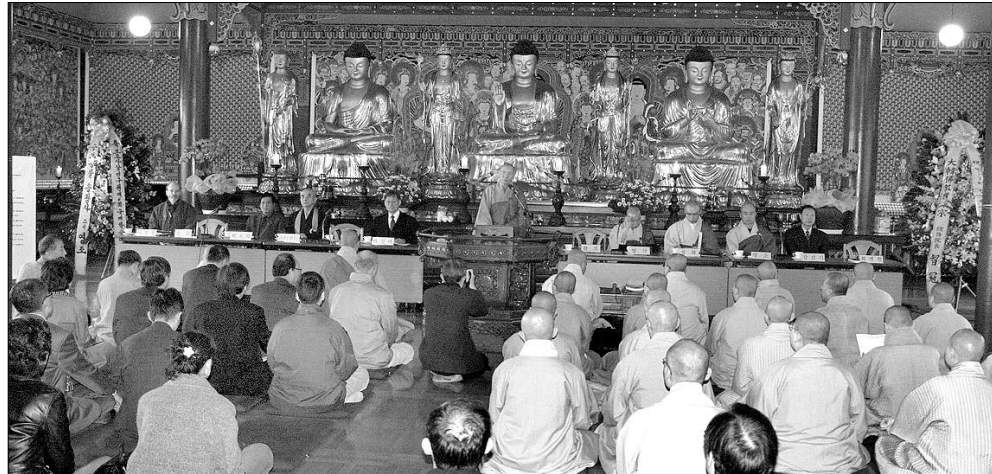
시아에서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서명원 교수는 “서구에서 간화선의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인도의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 정착하는 데 200여년이 걸렸듯이 간화선이 서양에 토착화하는 데도 수 세기가 걸릴 것”이라면서도 “서양에서 간화선의 미래는 밝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서양 기독교의 은수생활(隱修生活)이 간화선 수행의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기독교의 위기가 간화선 수행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은수생활은 숨어서 고행과 절제를 하고, 호흡에 맞춰 자나 깨



국제학술회가 열린 법륜사 법당을 많은 이들이 찾아 관심도를 반영했다. 왼쪽사진은 기초강연을 한 박성배 교수.



이 사진은 박성배 교수 기자의 사진이다. www.buddhanews.com

■ 화두정신 되찾아야
박성배 교수가 말하는 화두정신이란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중생을 즉시 부처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박 교수에 따르면 그 같은 화두정신만 있다면 새벽녘에 떠오르는 새벽도 화두요, 봄에 피는 꽃, 가을에 지는 낙엽 등 모두 화두가 된다.

그렇다면 위빠사나, 간경, 사경, 염불, 주력 등의 형식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화두정신이 살아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간화선 수행자들 사이에서 화두정신이 실종돼 부처님으로부터 등 돌리게 하는 화두, 즉 사구(死句)

박 교수는 “화두를 방법으로 보는 것은 선에 대해 점(漸)적인 이해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라며 “시간의 틀 속에 갇힌 점적인 접근은 화두를 방법으로 보게 하고, 깨침은 그런 방법을 통해 나중에 이뤄져야 할 ‘어떤 것’이 돼버려 화두와 깨침을 둘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간화선을 절대화하기보다는 화두정신을 지키면서 각자 자기에게 맞는 수행을 택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활짝 개방하는 것이 부처님 뜻에도 맞고 다원화 시대에 맞다”고 강조하며 “간화선이라는 이름에 얽매기보다는 화두정신만 갖고

나타났다.

기초강연에 이어진 발표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에서는 티베트 불교의 위세에 밀려 간화선 보급이 저조하며, 간화선 수행전통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일본과 중국의 경우에도 간화선의 위상은 높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임제종을 중심으로 간화선이 남아있으나 목조선에 비하면 열세이며, 중국에서는 간화선 전통이 거의 사라진 가운데 심심관정(禪心觀淨)과 염불선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간화선이 서양에서는 물론 동양

나 예수의 이름을 의우는 ‘마음의 기도’를 기도방법으로 삼는, 일종의 기독교 쇄신 운동이다. 여기서의 마음의 기도가 간화선과 통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 서 교수의 견해다.

서 교수는 “진리의 역동성을 상실하고, 추상화·절대화되고 있는 기독교를 쇄신하는 데 간화선이 큰 자리가 될 것”이라며 “불교와 기독교가 공존해야하는 오늘의 한반도 현실은 기독교인을 위한 간화선을 꽃피우는 데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31>

허공의 과학

‘공’이라는 말 만큼 불교의 중요 개념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없다. 많은 사람들은 비어있는 공간을 떠올리기도, 천체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비어있는 공간과 물질이 이루고 있는 원자의 비어있는 공간에서 비슷한 허공의 패턴을 발견하기도 한다.

<능엄경>에서 부처님은 인간의 인식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의 인식 바탕이 모두 ‘공’함을 설명하신다. 육입 즉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여섯 가지 통로인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뜻이 모두 자체의 성질이 없음을 지루할 정도로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눈동자를 고정시켜 한 곳을 주시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모양(경전에서는 햇빛이라고 표현)이 보이

어떤 공간을 정해 놓고, 먼지도 뽑아내고, 빛도 뽑아내면 남는 것이 전혀 없는 공간이 가능할까.

그런 공간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양자역학의 가르침이다. 기술적으로 완전히 진공을 만들기 힘들다는 뜻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그런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완전한 진공에서도 양자역학적인 ‘가상적인’ 에너지가 존재해서 새로운 물질의 창조에 기여하게 된다고 물리학은 말한다.

양자역학은 또한 완전히 ‘정해진’ 상태를 거부한다. 소위 불확정성의 원리이다. 어떠한 고정불변한 상태는 측정할 수도 존재할 수도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 허공’이라는 개념 또한 우리가 만들어낸

실체없음은 ‘고정된 성질’이 없다는 뜻 “지금 인식하는 모든 것이 변하는 하나의 모습”

기도 하고, 신비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참선을 하거나, 기도를 하다보면 경험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를 신비한 종교적 체험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를 허망한 것으로 설명하고, 오히려 이러한 체험을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과 인식하는 주체의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계기로 하라고 가르치신다.

실체가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없다’는 허무의 뜻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고정된 성질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러한 속성을 줄여서 ‘공’이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공’이라고 하는 말이 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자체의 성질이 정해져 있지 않는 삼라만상의 존재하는 모습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잘못된 개념이다.

이러한 양자역학적인 발견과 삼라만상에 대한 ‘공’의 존재론이 얼마나 모순 없이 일치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발견이다. 어떠한 것에도 정해진 실체가 없다는 것,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이 변하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놀라운 체험이다.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마음들이 생길 때, 이 마음이 일어나는 곳을 관찰하자. 그러면 이 마음이 흐르는 물과 같이 쉽이 변화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옛 선사들이 이야기하신 ‘만물귀일(모든 존재가 하나로 돌아가는 원리)’이며, 참 불성을 깨닫는 첫 단추일지도 모른다.

■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불교의 현대화 ‘인간불교’가 코드” 첫 방한 라이용하이 중 난징대 교수

“인간불교가 지향하는 인격의 완성은 보살의 실현입니다.”

중국불교학의 권위자로 꼽히는 라이용하이(賴永海) 중국 난징대(南京大) 교수(사진)가 보조사상연구 국제학술회 참가자 처음 방한했다. 라이용하이 교수는 중국불성론 연구로 세계적인 학자 반열에 오른 중국의 대표적인 불교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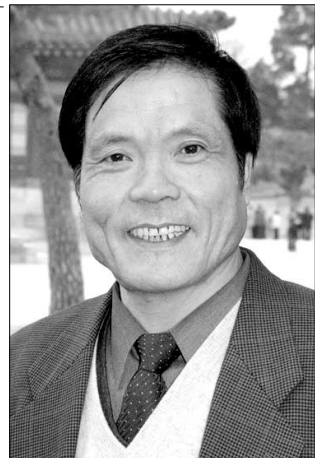
라이용하이 교수는 “전통불교가 현대사회와 맞지 않는 면이 많다”며 “중국에서는 전통불교를 현대화한 인간불교가 필연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서 라이용하이 교수는 “인간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격완성이라는 점에서 불교의 요체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셈”이라며 “인격완성이란 ‘훌륭한 사람’

과 구별되는 것으로 보살이나 부처가 되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어떻게 인격완성을 이룰 수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어진 교육·학술·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인격적 각성을 도모함으로써 실현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불교에 대해 라이용하이 교수는



글·사진=박익순 기자 info@buddhanews.com

개달음(도통)과 불치병 난치병 각종암 신병(빙의·해리) 기적의 치유법 전수반 모집

참선공지도자

- **참선공(參善空)**: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 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파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며 강력한 내공, 외공을 소유한다.
- **환혼동(幻魂動)**: 조상 영가와 일체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체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치유명상**: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 ◆ 교육후 神치유명상사 자격증 참선공 자격증 발급
- ◆ 지도자 과정 전수 후 사회활동 하실분 협회에서 적극 추천, 후원 합니다
- ※ 불치병, 난치병, 신병 상담 환영. 주시스님이 직접 상담



現근 신선암 주지
現 참선공 협회장
現 치유명상 협회장

神치유명상가

◆ 참선공의 사례

- ①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 돌아가서 한의원 병원, 기공, 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 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 ② 60세 중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 ③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살부터 오른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걸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 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었다.
- ④ 고등학교 2학년때 재학 중인 학생이 종두때부터 전혀 물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 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 ⑤ 50세 중진 스님은 영기가 빙의 되어 눈에 뻘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특별전수과정

토요반
15:00 ~ 18:30 (12회 과정)
● 전수비: 300만원

입금계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이영하

조상천도비법
자비손 치유법
음성 내공법
빙의·해리 치유법
칠차원 생명법
전생 치유법
내생 치유법

권신선암 참선공협회. 神치유명상협회 ●전화: 02)383-1319 / 011-379-1319 ●주소: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